

#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와 조세복잡성을 중심으로 —

김지민\*\* · 박성욱\*\*\*

## Ⅰ 목 차 Ⅱ

I. 서 론	131	IV. 연구설계	147
II. 이론적 배경	134	1. 연구모형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변수의 정의	
2. 조세회피		3. 표본선정	
I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39	V. 실증분석 결과	159
1. 조세회피		1. 기술통계량	
2. 조세복잡성		2. 실증분석결과	
3. 세무조사		IV. 결 론	170

\*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주저자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입니다.

\*\* 주저자 :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세무사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투고일 : 2025. 12. 26. 1차수정일 : 2026. 1. 20. 게재확정일 : 2026. 2. 5.

**<국문초록>**

Sarbanes-Oxley Act(SOX)의 제정은 Enron 회계부정 사건 이후 기업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감사인의 윤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계 왜곡을 식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미비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201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 담당자의 경력, 자격, 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내부회계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법규 준수, 자산 보호, 경영 전략 실행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회계 관련 정보의 공시가 강화되면서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과 회계정보의 질 간의 관계, 나아가 회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부회계 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에 있어 내부회계 담당자는 세무처리 및 조세 의사결정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 법규 준수와 부정 방지, 위험 관리, 윤리성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내부회계 인력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수록 내부통제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조세복잡성이 높거나 세무조사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부회계 전문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내부회계 담당자의 회계 경력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복잡성이 높거나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로 인한 명성 손상이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순응도가 제고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주제어** : 내부회계 전문성, 내부회계 담당자, 조세회피, 조세복잡성, 세무조사

## I. 서 론

Scholes and Wolfson(1992)<sup>1)</sup>은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에 있어 단순한 세금 절감 이상의 복합적인 비용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세 관련 비용을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비조세비용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세금 전략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세 전략은 단순한 납세 행위를 넘어 전략적 판단의 영역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세금 절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금 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자본구조 왜곡, 명성 손상, 법적 리스크 등 다양한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차원적 전략 수립 역량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는 조세 절감을 통해 세후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왔다(Graham and Tucker, 2006).<sup>2)</sup> 이에 따라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세법의 불완전성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전략으로 간주되었으며, 절세와 탈세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조세회피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정보비대칭을 심화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 ; Chen et al., 2014 ; Hasan et al., 2021).<sup>3)</sup> 이에 따라 기업의 조세 전략은 단기적 현금흐름 확보

1) Scholes, M. S., Wilson, G. P. and Wolfson, M. A.,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 The Tax Reform Act of 1986, unpublished manuscript, 1992.

2) Graham, J. R. and Tucker, A. L.,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Elsevier, 2006, pp.563~594.

3) Desai, M. A. and Dharmapala, D.,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와 장기적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 전략은 회계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은 전략 수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세무서비스는 감사인, 외부 전문가, 내부 조세담당자로 구성되며 (Sun and Habib, 2021),<sup>4)</sup> 이 중 내부 조세담당자는 세무조정, 전략 수립, 세무 조사 대응 등 법인세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일차적 책임자이다. 이들의 회계적 전문성과 조직 내 정보에 대한 이해도는 기업의 조세 전략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는 조세회피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상현·류예린, 2014).<sup>5)</sup>

내부회계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법적 준수, 자산 보호, 경영 전략 실행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Chalmers et al., 2019),<sup>6)</sup> 특히 국내에서는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 정보가 공시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과 조세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 인력의 규모와 전문 자격 보유 여부는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적이며(Bimo et al., 2019),<sup>7)</sup> 내부정보환경의 질 또한 장기

---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Elsevier, 2006, pp.145~179 ; Desai, M. A. and Dharmapala, D.,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MIT Press, 2009, pp.537~546 ; Chen, X., Hu, N., Wang, X. and Tang, X.,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 Evidence from China, *Nankai Business Review International* 5(1), Emerald Group Publishing, 2014, pp.25~42 ; Hasan, M. M., Lobo, G. J. and Qiu, B., Organizational Capital,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70, Elsevier, 2021, Article 102050.

- 4) Sun, X. S. and Habib, A.,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5(3), Wiley, 2021, pp.675~715.
- 5) 지상현·류예린,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과 조세회피 관련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11호, 대한경영학회, 2014.
- 6) Chalmers, K., Hay, D. and Khelif, H., Internal Control in Accounting Research : A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42(1), Elsevier, 2019, pp.80~103.

적 조세절감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allemore and Labro, 2015 ; 홍옥화 외, 2018).<sup>8)</sup>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부회계 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복잡성과 세무조사 여부가 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 경력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경험이 있거나 높은 조세복잡성을 가진 기업에서는 이 음(-)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조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내부회계와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제Ⅳ장에서는 연구모형과 변수 도출 과정을 설명하며,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한다.

---

7) Bimo, I. D., Prasetyo, C. Y. and Susilandari, C. A.,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on Tax Avoidance : The Case of Indonesia, *Journal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21(2), Emerald Group Publishing, 2019, pp.131~143.

8) Gallemore, J. and Labro, 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pp.149~167 ; 홍옥화 외 2인,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8.

## II. 이론적 배경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는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며,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COSO, 2013).<sup>9)</sup> Sarbanes-Oxley Act(SOX)의 도입 이후, 내부통제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Doyle et al., 2007a).<sup>10)</sup>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내부통제가 회계정보의 질, 투자 효율성, 자본비용, 기업성과, 지배구조 개선, 법적리스크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왔다(Doyle et al., 2007b, Ashbaugh-Skaife et al., 2008, Goh and Li, 2011, Zhang, 2007, Ahmed and Duellman, 2007, Watts 2003).<sup>11)</sup> 이를 통해 내부회계는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 기업 운

---

9) COSO,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2013.

10) Doyle, J. T., Ge, W. and McVay, S.,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Elsevier, 2007, pp.193~223.

11) Doyle, J. T., Ge, W. and McVay, S.,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2(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7, pp.1141~1170 ; Ashbaugh-Skaife, H., Collins, D. W. and Kinney Jr., W. R., The Discovery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Elsevier, 2008, pp.166~192 ; Goh, B. W. and Li, D., Internal Control and Investment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SOX Section 404 Disclo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5), Elsevier, 2011, pp.425~443 ; Zhang, J., Accruals, Investment, and the Accrual

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관리 도구로서, 기업성과와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부회계는 회계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법적 준수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Weber(2014)<sup>12)</sup>는 내부회계가 감사 및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서화와 보고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Chenhall(2003)<sup>13)</sup>은 내부회계가 오류 방지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감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및 규제 준수 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Sarens and Abdolmohammadi(2007)<sup>14)</sup>는 내부회계가 상장기업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 구축과 정보 제공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는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조세전략 역시 이러한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의사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조세전략은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제 및 평판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내부회계 기능을 통해 그 적정성과 위험 수준이 검토·통제되는 대상이 된

---

Anomaly, *The Accounting Review* 82(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7, pp.133~167 ; Ahmed, A. S. and Duellman, S., Accounting Conservatism and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3(2-3), Elsevier, 2007, pp.411~437 ; Watts, R. L.,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3, pp.207~221.

- 12) Weber, J., The Role of Performance Evaluations in the Compensation of Managers, *The Accounting Review* 89(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4, pp.675~704.
- 13) Chenhall, R. H., Management Control Systems Design Within Its Organizational Context : Findings from Contingency-Based Research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8(2), Elsevier, 2003, pp.127~168.
- 14) Sarens, G. and Abdolmohammadi, M. J., Agency Theory as a Framework for Internal Auditing Research,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2), Emerald Group Publishing, 2007, pp.150~165.

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회계 전문성은 조세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와는 별개로, 조세 의사결정이 재무보고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관리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세회피

### 가. 최적의 조세전략

Scholes and Wolfson(1992)<sup>15)</sup>에 따르면, 기업의 조세계획은 명시적 세금(explicit tax) 절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암묵적 비용(implicit tax)과 비조세 비용(non-tax cost)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 명시적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 왜곡이나 자본조달비용 상승과 같은 암묵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 과징금 및 소송 위험, 평판 손실과 같은 비조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전략의 경제적 합리성은 명시적·암묵적·비조세 비용을 모두 감안한 순편익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은 조세전략의 최적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처리 능력으로 기능한다.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인력은 조세회피 기회를 식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전략이 가져올 투자 왜곡, 재무위험,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 제재·소송 비용, 평판 손실 등 암묵적·비조세 비용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반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 담당자는 단순한 명시적 세금 절감 효과보다 세무조사와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 이해관계자의 신뢰 하락 등 비조세 비용의 기댓값을 더 크게 인식·계산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한 조세회피 기회에 직면하더라도,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의 기대 순편익을 낮게 평가하여 이를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보

---

15) Scholes, M. S., Wilson, G. P. and Wolfson, M. A., *op. cit.*, 1992.

수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choles and Wolfson(1992)<sup>16)</sup>의 비용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명시적 세금 절감보다 암묵적·비조세 비용의 확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관찰되는 조세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조세회피의 정의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특별한 대가 없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기업의 관점에서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한 한 조세 부담을 축소하여 내부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는다(Hanlon and Heitzman, 2010).<sup>17)</sup> 이러한 조세 경감 행위는 합법성 여부에 따라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로 구분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가 절세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탈세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이 두 개념의 경계에 위치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세법의 불완전성 또는 해석의 여지를 활용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세회피는 때로 절세와 탈세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며(이전오, 2007),<sup>18)</sup>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특정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조세회피로 정의한다.

16) Scholes, M. S., Wilson, G. P. and Wolfson, M. A., *op. cit.*, 1992.

17) Hanlon, M. and Heitzman, S.,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Elsevier, 2010, pp.127~178.

18) 이전오,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회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행위를 의미하며, 경제적 실체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세금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위적 구조를 포함한다(Alm and Torgler, 2011 ; Payne and Raiborn, 2018).<sup>19)</sup>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실질적 사업 변화 없이 특정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조세회피의 공격성은 경제적 실체보다 법적 형식에 집중하거나, 법률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의해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공격적 행위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조세회피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세후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Graham and Tucker, 2006).<sup>20)</sup> 그러나 최근의 대리인 이론적 관점에서는 조세회피가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경영자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강정연 · 김영철, 2012).<sup>21)</sup> 실제로 조세회피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재무보고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박미영, 2012 ; Scarpa and Signori, 2020).<sup>22)</sup> 이는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절감

19) Alm, J. and Torgler, B., Do Ethics Matter? Tax Compliance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 Springer, 2011, pp.635~651 ; Payne, D. M. and Raiborn, C. A., Aggressive Tax Avoidance : A Conundrum for Stakeholders, Government,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7(2), Springer, 2018, pp.469~487.

20) Graham, J. R. and Tucker, A. L., *op. cit.*, 2006, pp.563~594.

21) 강정연 · 김영철,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2.

22) 박미영,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 Scarpa, F. and Signori, S., Ethics of Corporate Taxation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 Rendtorff, J. D. (Ed.), *Handbook of Business Legitimacy*, Springer Nature, 2020, pp.459~485.

효과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성 손실, 규제위험, 감시비용 등의 비조세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Ⅲ.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1. 조세회피

Armstrong et al.(2015)<sup>23)</sup>은 자료포락분석법(DEA)을 활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자의 능력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영 능력이 높은 경영자는 전통적인 투자에서 더 높은 순현재가치(NPV)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므로, 조세회피보다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에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 et al.(2014)<sup>24)</sup>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성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 CFO가 재직 중인 기업일수록 남성 CFO가 재직 중인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영자의 능력·성별 같은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회피를 경영진의 성향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 변수로 파악한다.

다른 한편으로, Chen et al.(2010)<sup>25)</sup>은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정치적 연결성

---

23)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pp.1~17.

24) Francis, B. B., Hasan, I., Wu, Q. and Yan, M., Are Female CFOs Less Tax Aggressive? Evidence from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6(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4, pp.171~202.

25)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Are Family Firms More Tax

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세무당국과 정치적 관계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보다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rank et al.(2009)<sup>26)</sup>은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품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Desai and Dharmapala(2006)<sup>27)</sup>은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내부통제의 미비로 경영진이 세무전략을 자의적으로 수행할 경우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Chen et al.(2012)<sup>28)</sup>은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보고의 질이 저하되어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Huang and Watson(2015)<sup>29)</sup>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조세회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Cheng et al.(2012)<sup>30)</sup>은 자본구조가 조세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기업지배구조, 감사품질, CSR, 자본구조 등 거시적 지배구조 및 환경 요인이 조세회피의 강도와 방향을 제약한다는 점을 밝혀왔다.

요약하면, 선행연구는 조세회피를 설명하기 위해 (i) 경영자 개인의 특성(능력, 성별, 경력 등)과 (ii) 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 감사환경 · CSR · 자본

---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Elsevier, 2010, pp.41~61.

26) Frank, M. M., Lynch, J. L. and Rego, S. O., Are Financial and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Reflective of Broader Corporate Policies?, *The Accounting Review* 8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pp.467~496.

27)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28) Chen, L. H., Dhaliwal, D. S. and Trombley, M. A., Consistency of Book-Tax Differences and the Information Content of Earning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2, pp.93~116.

29) Huang, H. and Watson, 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34, Elsevier, 2015, pp.1~16.

30) Cheng, A. C., Huang, H. H., Li, Y. and Stanfield, J., The Effect of Hedge Fund Activism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2, pp.1493~1526.

구조와 같은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전략의 의사결정 주체와 제도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세무전략이 실제로 설계·집행·모니터링되는 실무 차원의 집행 능력, 특히 내부회계 인력의 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즉, 기존 연구는 누가 세무전략을 승인하고 어떤 지배구조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풍부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해당 전략이 일상적인 회계·세무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통제되는지에 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내부회계 인력은 세무조정, 계정과목 분류, 인식과 측정의 판단,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전략의 실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 주체이다. 이들의 회계·세무 전문성은 조세회피 기회의 식별과 활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법적 위험과 평판 손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 경영진의 특성이나 이사회 구조와 같은 상위 수준의 요인이 조세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내부회계 전문성은 조세회피 전략의 설계·집행·보고 과정에 가장 근접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Armstrong et al.(2015)<sup>31)</sup>은 CEO 및 CFO에 대한 성과기반 보상체계가 조세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보상 인센티브가 구체적인 세무조정과 보고 관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영진의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감사품질, CSR, 자본구조 등은 조세회피의 강도와 방향에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나, 조세 전략이 실제로 실행되는 수준에서는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보다 직접적인 제어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31)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op. cit.*, 2015, pp.1~17.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주로 다루어 온 거시적 지배구조 요인 및 경영자 특성과 구별되는 실무 차원의 회계 전문성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조세 의사결정의 맥락으로 확장할 경우, 내부회계 전문성은 조세 전략이 재무보고 단계에서 허용·통제되는 수준에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로부터 파생되는 평판 손실이나 세무당국의 감시 강화 등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인식하고 억제할 유인이 커지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 2. 조세복잡성

Schwab et al.(2022)<sup>32)</sup>은 Scholes와 Wolfson(1992)<sup>33)</sup>의 최적 조세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DEA(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들은 명시적 비용의 대체지표로 세후이익(after-tax return)을, 비조세비용의 대체지표로 현금흐름의 변동성(volatility of cash)을 설정하고, 다음의 여섯 가지 투입변수를 정의하였다. ① 연구개발비(R&D), ② 유형자산(PP&E), ③ 조세피난처 이용(HAVEN), ④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Inventory and Receivables), ⑥ 부채(Debt)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기업의 자산 구성, 조세회피 관련 자산의 보유 형태, 자본조달 방식 등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설계된 것이다. 본

---

32) Schwab, C. M., Stomberg, B. and Williams, B. M., Effective Tax Planning, *The Accounting Review* 97(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22, pp.413~437.

33) Scholes, M. S., Wilson, G. P. and Wolfson, M. A., *op. cit.*, 1992.

논문은 Schwab et al.(2022)<sup>34)</sup>의 모형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및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조세 감면이나 이연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규모로 측정된다. 유형자산은 세법상 결산조정 항목으로, 자산 취득 및 임의상각을 통해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Zarowin, 1988).<sup>35)</sup> 조세피난처는 소득이전과 이전가격 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조세효율을 극대화하는 예가 일반적이다(Dyrenge et al., 2015 ; De Simone et al., 2019).<sup>36)</sup> 또한 무형자산은 연구개발의 자산화, 영업권 상각 등 세무계획이 가능한 요소로 작용한다(Wu et al., 2022 ; Dyrenge et al., 2019).<sup>37)</sup>

이와 같이 기업의 자산 구성 및 재무구조, 자본조달 방식, 투자 의사결정 등은 조세전략 수립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변수들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조세복잡성은 단기적으로는 절세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발 위험과 관리비용을 높여 효율적 조세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도 세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합법적 범

34) Schwab, C. M., Stomberg, B. and Williams, B. M., *op. cit.*, 2022, pp.413~437.

35) Zarowin, P., Non-Linearities and Nominal Contracting Effects : The Case of the Depreciation Tax Shiel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0(2), Elsevier, 1988, pp.89~110.

36) Dyrenge, S. D., Lindsey, B. P., Markle, K. S. and Shackelford, D. A.,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untry Characteristics on the Global Equity Supply Chains of US Multination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9(2-3), Elsevier, 2015, pp.182~202 ; De Simone, L., Mills, L. F. and Stomberg, B., Using IRS Data to Identify Income Shifting to Foreign Affiliat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4, Springer, 2019, pp.694~730.

37) Wu, K., Ai, W. and Liu, Y., Do Intangible Assets Really Foster Corporate Tax Avoidance?, *SSRN Working Paper* No. 3811955, 2022. ; Dyrenge, S. D., Hanlon, M. and Maydew, E. L., When Does Tax Avoidance Result in Tax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9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9, pp.179~203.

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연구들 또한 내부회계 인력구조, 전문성, 정보환경이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제약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지상현·류예린, 2014 ; 홍옥화 외, 2018).<sup>38)</sup> 이에 따라 내부회계 전문성을 갖춘 기업은 높은 조세복잡성 상황에서도 세무위험을 낮추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 조세복잡성이 높을수록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3.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신고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수행하는 공식적 검토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가 사실에 부합하며 세법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Alleyne and Howard, 2005).<sup>39)</sup> 세무조사는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의 적정성, 세액 산출의 합리성, 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세무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인 조세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기업은 세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잠재적 제재를 피하기

38) 지상현·류예린, 앞의 논문, 대한경영학회, 2014. ; 홍옥화 외 2인, 앞의 논문, 한국회계학회, 2018.

39) Alleyne, P. and Howard, M., An Exploratory Study of Auditors' Responsibility for Fraud Detection in Barbado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0(3), Emerald Group Publishing, 2005, pp.284~303.

위해 조세회피 활동을 축소하며 투명한 세무보고를 강화한다(Hoopes et al., 2012).<sup>40)</sup> Kubick et al.(2016)<sup>41)</sup>의 연구는 세무조사 이전엔 기업들이 세금 계획 활동에 적극 투자하지만, Li et al.(2019)<sup>42)</sup>은 세무조사 이후 이러한 투자활동이 유지되더라도 조세 전략의 공격성은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세무조사 이후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반영해 세무관리 체계를 조정하며, 향후 조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수적 접근을 강화한다. Mills and Sansing(2000)<sup>43)</sup>은 세무조사 이후 기업들이 신고세액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DeBacker et al.(2015)<sup>44)</sup>의 연구 역시 세무조사 후 기업이 세무오류를 최소화하고 회피행위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로 인한 제재 및 평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무조사는 기업이 세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Slemrod and Yitzhaki, 1987).<sup>45)</sup> 이리

40) Hoopes, J. L., Mescall, D. and Pittman, J. A.,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1-2), Elsevier, 2012, pp.225~241.

41) Kubick, T. R., Lynch, D. P. and Mayberry, M. A.,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Before and After an Audit, *Accounting Horizons* 30(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pp.233~251.

42) Li, Y., Wang, T. and Zhou, 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Chinese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54(3), University of Illinois, 2019, pp.123~145.

43) Mills, L. F. and Sansing, R. C.,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1), Canadian Academic Accounting Association, 2000, pp.85~106.

44) DeBacker, J., Heim, B. T. and Tran, A., Importing Corruption Culture from Overseas : Evidence from Corporate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7(1), Elsevier, 2015, pp.122~138.

45) Slemrod, J. and Yitzhaki, S., The Optimal Audit Strateg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1), Elsevier, 1987, pp.25~47.

한 강화된 내부통제는 세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특히 대기업은 세무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세무계획 활동을 지속하지만, 그 실행 강도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Christian, 1994 ; Hasseldine and Morris, 2013),<sup>46)</sup> 이는 세무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합리적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기업의 조세전략 구조와 내부 관리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한다(Erard, 1997 ; Wunder, 2009).<sup>47)</sup> 기업은 세무조사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세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세무조사는 전·후 시점 모두에서 조세회피 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세무조사 이후에는 내부회계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세무리스크 관리와 조세순응도가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 복잡성 속에서도 암묵적 비용과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조세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세무조사 이후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는 강화될 것이다.

---

46) Christian, C., Tax Audits and Business Income : Accounting Proced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2), Wiley, 1994, pp.235~258 ; Hasseldine, J. and Morris, G., Corporate Tax Complexity and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8(4),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3, pp.1593~1612.

47) Erard, B., The Impact of Tax Audits on Large Corpor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2), Elsevier, 1997, pp.173~202 ; Wunder, H., Tax Control Frameworks : A New Approach to Tax Risk Management, *OECD Tax Journal* 66(4), OECD, 2009, pp.75~89.

## IV.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 가. 가설검증 모형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OLS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식 (1)은 내부회계 전문성(IC)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는 가설 1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내부회계 전문성의 회귀계수  $\beta_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식 (2)는 조세복잡성(TAXCPX)이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조세복잡성이 높아질수록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음(-)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상호작용항( $IC \times TAXCPX$ )의 회귀계수  $\beta_2$ 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조세복잡성이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beta_2$ 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복잡성이 증가하면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지만,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과 명성 손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beta_2$ 는 음(-)의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식 (3)은 세무조사(TAXINV)가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모형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내부

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화된다면, 상호작용항( $IC \times TAXINV$ )의 회귀계수  $\beta_2$ 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세무조사가 내부회계 전문성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경우  $\beta_2$ 는 유의한 양(+)  
의 값을 갖게 된다. 세무조사 이후 조세회피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기회주의적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세무관리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eta_2$ 는 음(-)의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속변수로는 Desai and Dharmapala(2006)<sup>48)</sup>이 제안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BTD$ )를 활용하여, 총 발생액을 차감한 조세회피 지표( $TS\_T$ )와 재량적 발생액을 차감한 조세회피 지표( $TS\_D$ )를 사용한다. 독립변수로서 내부회계 전문성( $IC$ )은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 $MANCAR$ )과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근속경력( $MEMCAR$ )으로 측정한다.

$$\begin{aligned}
 TS\_T(TS\_D) = & \beta_0 + \beta_1IC + \beta_2SIZE + \beta_3LEV + \beta_4GRW + \beta_5ROA \\
 & + \beta_6CFO + \beta_7PPE + \beta_8IA + \beta_9LOSS + \Sigma IND \\
 &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_식(1)

$$\begin{aligned}
 TS\_T(TS\_D) = & \beta_0 + \beta_1IC + \beta_2IC \times TAXCPX + \beta_3TAXCPX + \beta_4SIZE \\
 & + \beta_5LEV + \beta_6GRW + \beta_7ROA + \beta_8CFO + \beta_9PPE \\
 & + \beta_{10}IA + \beta_{11}LOSS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_식(2)

$$\begin{aligned}
 TS\_T(TS\_D) = & \beta_0 + \beta_1IC + \beta_2IC \times TAXINV + \beta_3TAXINV + \beta_4SIZE \\
 & + \beta_5LEV + \beta_6GRW + \beta_7ROA + \beta_8CFO + \beta_9PPE \\
 & + \beta_{10}IA + \beta_{11}LOSS + \Sigma IND + \Sigma Year + \varepsilon
 \end{aligned}$$

\_식(3)

---

48)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변수의 정의>

Dependent Variables

- *TS\_T* : 총발생액으로 측정된 조세회피 측정치
- *TS\_D* :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조세회피 측정치

Independent Variables : Internal accounting's Career(IC)

- *MANCAR* :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직의 자연로그값
- *MEMCAR* :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값

Interaction Variables

- *TAXCPX* : 조세복잡성이 높으면 1, 아니면 0
- *TAXINV* :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있었으면 1, 아니면 0

Control Variables

- *SIZE* : 기업규모(=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 : 부채비율(= 기초 총부채 / 기초 총자산)
- *GRW* : 매출액성장률(= 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ROA* : 총자산이익률(= t기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t기 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 *PPE* : 유형자산 비율(= 토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 기초총자산)
- *IA* : 무형자산 비율(= 무형자산 / 기초총자산)
- *LOSS* : 당해 손실여부
- *IND* : 산업더미(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YEAR* : 연도더미

## 2. 변수의 정의

### 가. 내부회계 전문성

#### (1) 내부회계관리자 경력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공시하는 문서로, 그 안에는 회계담당자의 경력과 교육이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기업 내 내부회계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

서 제도의 설계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회계담당임원과 회계담당직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근거하여 회계업무를 실행하고 회계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때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은 세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조세전략의 결과가 재무보고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해당 전략의 적정성과 위험 수준을 검증·통제하는 기능에 보다 가깝다.

이 중 본 연구는 내부회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근무연수와 회계경력을 고려한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기업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조직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회계 기능 수행 시 높은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며, 회계경력이 길수록 축적된 회계 지식과 실무 능력을 통해 복잡한 회계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연수는 회계부서 외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어 내부회계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Koo and Ki, 2020 ; 오수진·유승원, 2022)<sup>49)</sup>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내부회계 전문성의 대용치로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의 자연로그값(MANCAR)을 사용한다. 이는 회계전문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지표로 본다. 본 연구에서 MANCAR는 조세전략의 실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가 아니라, 조세 의사결정이 재무보고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통제되는지를 반영하는 내부통제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된다.

---

49) Koo, J. E. and Ki, E. S., Internal Control Personnel's Experience,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SG Rating, *Sustainability* 12(20), MDPI, 2020, pp.1~16 ; 오수진·유승원,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과 가치관련성”,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1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 표 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인력 세부 현황

구 분	성명	전화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회계담당임원							
회계담당직원							

(2)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현황과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 내 다양한 부서가 내부회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이하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시·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회계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승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주로 이사회 인원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내부회계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회계처리 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재무보고 과정에서 회계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실무방면의 주체로서 내부회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반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승인 및 기업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감시·평가하며,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용부서, 인사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 등은 내부회계의 간접적 지원 부서로서 회계정보시스템 관리, 자금운용 감독, 징계 및 회계정보 공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회계적 전문성과 경험에 주목하므로, 전산운영부서나 인사관리부서 등 간접 지원부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MEMCAR)은 내부회계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감사위원회”, “회계처리부서”, “내부회계전담부서”에 소속된 인력의 경력 월수와 인원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며, 구체적으로 각 부서 인력의 경력 월수와 인원수의 곱을 총 인력 수로 나눈 후<sup>50)</sup>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측정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MEMCAR 역시 세무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의미하기보다는, 내부회계 조직 전반의 전문성이 조세전략에 대해 어느 수준의 통제와 보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현황

구 분	총원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감사위원회					
이사회					

50) 2022년 삼성전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로 변수 도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원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비율 (B/A × 100)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감사(위원회)	3	3	—	—	54
이사회	11	11	—	—	23
내부회계관리총괄	1	1	—	—	13
회계처리부서	46	36	6	16.7%	130
자금운영부서	20	20	2	10.0%	148
전산운영부서	181	39	—	—	244
공시관련부서	19	12	—	—	140
인사관리부서	67	39	—	—	148
내부회계관리부서	14	13	3	23.1%	137
내부회계평가부서	3	3	—	—	

– 내부회계 담당 인력 평균경력 : [감사위원회(3 × 54) + 내부회계관리총괄(1 × 13) + 회계처리부서(36 × 130) + 내부회계관리부서(13 × 137)] / 인력수 합계(3 + 1 + 36 + 13) ÷ 12 = 10.434년의 자연로그값

구 분	총원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회계처리부서					
내부회계관리부서					
전산운용부서					
자금운용부서					
인사관리부서					
...	...	...	...	...	...

나. 조세회피(Kothari et al. 2005)<sup>51)</sup>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sup>52)</sup>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이익의 차이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요소를 통제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sup>53)</sup>는 기업의 세무조정, 즉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간의 차이가 경영자의 보고이익 조정에 의한 변동, 기업별 고정효과(세무전략 능력, 영업특성), 그리고 경영자의 전략적 조세회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회계 - 세무이익 차이(BTD)를 활용하는 조세회피 측정치는 단순한 사후 유효법인세율과 달리 경영자의 의도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 장점을 가진다.<sup>54)</sup> 회계 - 세무이익 차이를 활용한

51) Kothari, S. P., Leone, A. J. and Wasley, C. E.,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Elsevier, 2005, pp.163~197.

52)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53) Desai, M. A. and Dharmapala, D., *Ibid*, 2006, pp.145~179.

54) 그러나 과세이익은 회계이익과 달리 별도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가 존재하고 BTD 중 조세회피와 관련없는 부분(non-tax planning)을 포함한 변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기업별 고정효과 역시 시계열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므로, 세무전략에 의한 조세회피 부분은 개별 기업 표본의 상대적인 값으로 추정해야한다. 즉, 유효법인세율이 아닌 BTD를 활용한 조

조세회피 측정 방법은, 총 발생액 또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BTD*의 잔차 부분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실제로 세무보고와 회계보고를 통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인 행위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TD = \beta_1 TA + v + \varepsilon \quad \text{식(4)}$$

$$BTD = \beta_1 DA + v + \varepsilon \quad \text{식(5)}$$

*BTD* : 회계 - 세무이익 차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납부액 / 법정 최고세율)

*TA* : 총 발생액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 현금흐름)

*DA* :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1996)]

$v$  : 기업더미

Desai and Dharmapala(2006)<sup>55)</sup>는 회계-세무이익차이 중 경영자의 재무보고 이익조정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총 발생액(*TA*)을 경영자 이익조정 대용치로 사용한다. 그러나 총 발생액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대용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DA*)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등 비재량적 발생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총발생액(*TA*)과 Dechow et al.(1996)<sup>56)</sup>에서 제시한 수정 Jones 모형<sup>57)</sup>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DA*) 모두 경영자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사용한

---

세회피 측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Hanlon and Heitzman, 2010.).

55)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56) Dechow, P. M., Sloan, R. G. and Sweeney, A. P.,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1), Wiley, 1996, pp.1~36.

57) 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et al.(1996)에서 제시한 수정 Jone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아래 모형에 따라 도출된 잔차( $\epsilon_{i,t}$ )를 재량적 발생액(*DA*)으로 정의하였다.

$$TA = \frac{1}{A_{i,t-1}} + \beta_1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_{i,t-1}} + \beta_2 \frac{PPE_{i,t}}{A_{i,t-1}} + \epsilon_{i,t}$$

다.  $\nu$ 는 기업별 고정효과로서 개별 기업터미를 포함한다. 두 회귀식에서 도출된 잔차를 각각 조세회피의 대응치( $TS1$ ,  $TS2$ )로 사용하였으며 잔차를 도출함에 있어 산업-연도별 횡단면 표본별로 측정한다.

#### 다. 조세복잡성

Schwab et al.(2022)<sup>58)</sup>은 기업의 세무계획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조세 의사결정 구조와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① 연구개발비, ② 유형자산, ③ 조세피난처, ④ 무형자산, 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및 ⑥ 부채로 정의한다. 이러한 투입변수는 기업의 자산 유형, 조세회피 관련 자산 보유, 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조달 형태 등 조세전략과 의사결정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세무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업이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조세복잡성을 측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무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연구개발비는 세제 혜택과 무형자산 상각 등의 효과를 통해 조세 감면 및 세금이연에 활용되는 만큼, 해당 항목은 당기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 증가분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은 법인세 법상 결산시점 조정이 가능하므로, 취득이나 임의상각을 통한 절세효과를 반영하도록 유형자산을 기초총자산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 조세피난처 변수는 해외자회사 중 조세피난처 소재 관계회사의 수에 로그값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무형자산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영업권 상각 등 다양한 세무계획 도구를 내포하므로 무형자산 대 기초총자산 비율로 설정한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경우 세무상 평가 방법 변경,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매출채권 충당금 등의 세금 이연 내지 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합계를 기초총자산 대비 비율로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는

58) Schwab, C. M., Stomberg, B. and Williams, B. M., *op. cit.*, 2022, pp.413~437.

자본조달을 통한 이자비용 공제 등 감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이 같은 구성은 세무계획 수립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배분 요소와 조세전략 시행의 복잡성을 수치화하도록 설계되어, 실증적 분석에서 조세복잡성 및 세무계획의 효과적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표 3> 조세복잡성(TAXCPX) 설정 변수

구 분	① 연구 개발비	② 유형자산	③ 조세 피난처	④ 무형자산	⑤ 재고자산 매출채권	⑥ 부채비율
1분위(high)	2	2	2	2	2	2
2분위(middle)	1	1	1	1	1	1
3분위(low)	0	0	0	0	0	0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각 조세복잡성 측정 변수에 대해, 기업별 과거 5년간의 값을 기준으로 중위수를 산출한 뒤, 산업 및 연도별로 집단 내 수명주기 및 고유 특성의 편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 산업-연도 표본집단(subsample)을 구성한다. 이후 각 집단별로 6개 조세복잡성 변수의 상대적 규모를 3분위수로 구분하여, 1분위(high)에는 2점, 2분위(middle)에는 1점, 3분위(low)에는 0점을 부여한다.

부여된 점수는 각 기업-연도별로 합산하여 총 조세복잡성 점수를 도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표본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 표본 내에서 조세복잡성 점수가 7점 이상인 기업에 1의 값을 부여하여, 조세회피 잠재력이 높은 집단으로 정의한다.

#### 라. 세무조사 여부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나, 기업이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시 의무가 없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유가

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 2.5%)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관련 데이터는 주로 대규모 추징 세액이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같은 한계는 다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분석 범위가 공시된 세무조사 표본으로 제한된다(고성삼·박상섭, 2011; 임진윤, 2006; 심준용 외, 2015).<sup>59)</sup>

본 연구는 세무조사 이후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 전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연도 이전 4년 이내<sup>60)</sup>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에는 1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세무조사 변수는 세무조사 해당 유무를 포착하기보다는, 세무조사 결과 유의미한 규모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공시 대상이 된 기업을 식별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공시가 없는 기업 집단에는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부과세액이 경미하여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변수는 세무조사 해당 유무보다는 세무조사 결과의 심각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개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

59) 고성삼·박상섭,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1.;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6.; 심준용 외 2인,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에 재무분석가가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5.

60)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기업 목록과 재무제표, 주가 데이터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하였다. 통제변수에 활용된 지분율 데이터는 한국상장사협의회 TS-2000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KIND)에서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련 정보는 DART의 “내부회계운영보고서” 자료를 손수 수집하는 방식(hand collecting)으로 확보하였다.

이때, 존재하지 않는 표본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일부 측정치가 산업-연도별 잔차값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특정 연도 산업 내 표본이 10개 미만인 경우도 제외하였다. 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표본은 조세회피 측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sup>61)</sup> 마지막으로, 재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 표본 수는 5,581개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극단적 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율 변수들은 상하위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ing)을 하였다.

---

61) 회계-세무이익차이(BTD)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추정과세소득을 차감해야하는데, 추정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경우 추정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며, 이는 표본편의에 의한 결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 V. 실증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량

<표 4> 기술통계량

변수	N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i>TS_T</i>	5,581	0.011	0.104	-0.541	-0.036	0.009	0.053	0.670
<i>TS_D</i>	5,581	0.008	0.107	-0.780	-0.044	0.002	0.047	0.660
<i>MANCAR</i>	5,581	3.091	0.799	2.302	2.833	3.135	3.178	3.526
<i>MEMCAR</i>	5,581	2.221	0.531	2.001	2.223	2.392	2.413	3.143
<i>TAXCPX</i>	5,581	0.120	0.235	0.000	0.000	0.000	0.000	1.000
<i>TAXINV</i>	5,581	0.020	0.151	0.000	0.000	0.000	0.000	1.000
<i>SIZE</i>	5,581	26.070	1.430	23.298	25.074	25.795	26.770	30.847
<i>LEV</i>	5,581	0.423	0.190	0.032	0.271	0.426	0.563	0.950
<i>GRW</i>	5,581	0.084	0.317	-0.812	-0.056	0.050	0.173	3.407
<i>ROA</i>	5,581	0.062	0.242	-0.341	0.007	0.052	0.101	0.586
<i>CFO</i>	5,581	0.092	0.195	-1.086	0.010	0.077	0.162	1.108
<i>PPE</i>	5,581	0.160	0.142	0.000	0.049	0.125	0.233	0.699
<i>IA</i>	5,581	0.032	0.058	0.000	0.004	0.011	0.032	0.363
<i>LOSS</i>	5,581	0.289	0.453	0.000	0.000	0.000	1.000	1.000

<변수의 정의>

Dependent Variables

- *TS\_T* : 총발생액으로 측정된 조세회피 측정치
- *TS\_D* :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조세회피 측정치

Independent Variables : Internal accounting's Career(IC)

- *MANCAR* :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의 자연로그값
- *MEMCAR* : 내부회계인력의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값

Interaction Variables

- *TAXCPX* : 조세복잡성이 높으면 1, 아니면 0
- *TAXINV* :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있었으면 1, 아니면 0

Control Variables

- *SIZE* : 기업규모(= 기초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 : 부채비율(= 기초 총부채 / 기초 총자산)
- *GRW* : 매출액성장률(= 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 *ROA* : 총자산이익률(= t기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 t기 영업활동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 *PPE* : 유형자산 비율(= 토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 기초 총자산)
- *IA* : 무형자산 비율(= 무형자산 / 기초총자산)
- *LOSS* : 당해 손실여부

<표 4>는 본 연구 표본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조세회피 측정 지표 중 하나인 경영자 이익조정을 총 발생액으로 추정된 변수(*TS\_T*)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0.011과 0.009로 나타났으며, 경영자 이익조정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추정된 변수(*TS\_D*)의 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0.008과 0.002로 관찰되었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의 유사 추정치와 질적으로 일치하며 본 연구의 측정치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내부회계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용 변수인 내부회계담당자의 회계경력 자연로그 값(*MANCAR*)는 평균 3.091, 중앙값 3.135로, 이는 약 20~25년의 경력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의 자연로그 값(*MEMCAR*)은 평균 2.221, 중앙값 2.392로 나타나 약 7~13년의 경력 수준임을 보여준다.

조세복잡성(*TAXCPX*)의 평균값은 0.120이며,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TAXINV*)의 평균은 0.020으로 집계된다.

## 2. 실증분석결과

### 가. 가설 1 실증분석결과(내부회계 전문성)

다음의 <표 5>와 <표 6>은 본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식(1)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해당 모형은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중 총 발생액을 기반으로 한 경영자 이익조정 변수( $TS\_T$ )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경력( $MANCAR$ )의 회귀계수( $\beta$ )는  $-2.848(t = -13.897)$ 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다. 평균 내부회계 인력 경력( $MEMCAR$ ) 역시  $-0.597(t = -12.483)$ 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재량적 발생액으로 추정된 조세회피 변수( $TS\_D$ )에서도, 내부회계관리자 경력( $MANCAR$ )의 회귀계수는  $-6.756(t = -20.070)$ ,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 $MEMCAR$ )은  $-1.375(t = -17.287)$ 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보인다. 이는 내부회계담당자의 회계경력 및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가 내재된 내부통제 기능을 통해 단순한 조세비용 절감 전략보다는 암묵적 비용 등 비조세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구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 가설1 OLS회귀분석 결과 ( $TS\_T$ )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S\_T$			
	$MANCAR$		$MEMCAR$	
	$\beta$	$t$ -value	$\beta$	$t$ -value
<i>Intercept</i>	3.724	14.552***	3.268	12.048***
<b>IC</b>	<b>-2.848</b>	<b>-13.897***</b>	<b>-0.597</b>	<b>-12.483***</b>
<i>SIZE</i>	-0.122	-19.250***	-0.099	-15.334***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T</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LEV</i>	0.066	1.574	-0.013	-0.307
<i>GRW</i>	0.317	14.959***	0.276	12.540***
<i>ROA</i>	0.533	5.435***	0.063	0.738
<i>CFO</i>	0.198	2.047**	0.467	4.759***
<i>PPE</i>	0.086	1.333	0.074	1.140
<i>IA</i>	2.608	17.197***	2.591	17.007***
<i>LOSS</i>	0.038	1.944*	0.008	0.408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b>80.792***</b>		<b>72.568***</b>	
Adj_Rsq	<b>0.284</b>		<b>0.270</b>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표 6> 가설1 OLS회귀분석 결과 (*TS\_D*)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D</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Intercept</i>	5.186	12.337***	4.457	9.888***
<b>IC</b>	<b>-6.756</b>	<b>-20.070***</b>	<b>-1.375</b>	<b>-17.287***</b>
<i>SIZE</i>	-0.212	-20.425***	-0.173	-16.212***
<i>LEV</i>	0.979	14.191***	0.790	10.939***
<i>GRW</i>	0.570	16.366***	0.512	13.980***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D</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ROA</i>	0.428	2.655***	-0.746	-5.241***
<i>CFO</i>	0.225	1.421	0.672	4.124***
<i>PPE</i>	0.105	0.984	0.087	0.808
<i>IA</i>	4.074	16.353***	3.933	15.539***
<i>LOSS</i>	-0.010	-0.303	-0.091	-2.749***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1.785***		73.900***	
Adj_Rsq	0.287		0.274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 나. 가설 2 실증분석결과(조세복잡성)

<표 7>과 <표 8>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식(2)를 적용한 OLS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은 조세복잡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 관계가 조세복잡성이 낮은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중 총 발생액 기반 경영자 이익조정 (*TS\_T*)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과 조세복잡성 간 상호작용 변수 (*MANCAR* × *TAXCPX*)의 회귀계수( $\beta_2$ )는 -1.423( $t = -4.334$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과 조세복잡성 간 상호작용 변수(*MEMCAR* × *TAXCPX*) 역시 -0.353( $t = -2.123$ )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재량적 발생액 기반 조세회피 측정치( $TS\_D$ )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자 경력과 조세복잡성 상호작용( $MANCAR \times TAXCPX$ )은  $-3.123(t = -5.132)$ ,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과 조세복잡성 상호작용( $MEMCAR \times TAXCPX$ )은  $-1.234(t = -3.000)$ 으로 1% 수준의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조세복잡성이 높은 기업에서 내부회계 담당자의 회계경력과 인력의 평균 경력이 길어질수록 조세회피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복잡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무처리에 내재된 고유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 경력 및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이 길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조세회피 기회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이며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은 인력은 단기적인 명시적 세부담 감소보다는 조세복잡성이 초래하는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 소송 비용, 평판 훼손과 같은 비조세비용(non-tax cost)을 크게 인식·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을 자제하고 보다 보수적인 조세전략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OLS회귀분석 결과 ( $TS\_T$ )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S\_T$			
	$MANCAR$		$MEMCAR$	
	$\beta$	$t$ -value	$\beta$	$t$ -value
<i>Intercept</i>	4.828	18.496***	4.367	15.825***
<i>IC</i>	-2.647	-13.299***	-0.566	-12.296***
<b><i>IC × TAXCPX</i></b>	<b>-1.423</b>	<b>-4.334***</b>	<b>-0.353</b>	<b>-2.123***</b>
<i>TAXCPX</i>	0.432	4.211***	0.342	1.842*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T</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SIZE</i>	-0.180	-25.496***	-0.158	-21.958***
<i>LEV</i>	0.205	4.866***	0.152	3.482***
<i>GRW</i>	0.309	14.691***	0.273	12.499***
<i>ROA</i>	0.354	3.635***	-0.087	-1.028
<i>CFO</i>	0.150	1.569	0.397	4.086***
<i>PPE</i>	0.084	1.311	0.069	1.068
<i>IA</i>	2.634	17.534***	2.626	17.406***
<i>LOSS</i>	0.045	2.322**	0.021	1.084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b>80.792***</b>		<b>72.568***</b>	
Adj_Rsq	<b>0.284</b>		<b>0.270</b>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표 8> OLS회귀분석 결과 (*TS\_D*)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D</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Intercept</i>	7.087	16.553***	6.355	13.882***
<i>IC</i>	-6.501	-19.915***	-1.345	-17.599***
<b><i>IC</i> × <i>TAXCPX</i></b>	<b>-3.123</b>	<b>-5.132***</b>	<b>-1.234</b>	<b>-3.000***</b>
<i>TAXCPX</i>	0.843	2.495**	0.678	2.101**
<i>SIZE</i>	-0.312	-26.975***	-0.275	-23.093***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TS_D</i>			
	<i>MANCAR</i>		<i>MEMCAR</i>	
	$\beta$	<i>t-value</i>	$\beta$	<i>t-value</i>
<i>LEV</i>	1.214	17.585***	1.071	14.768***
<i>GRW</i>	0.554	16.084***	0.506	13.971***
<i>ROA</i>	0.121	0.759	-0.998	-7.079***
<i>CFO</i>	0.142	0.906	0.551	3.414***
<i>PPE</i>	0.101	0.959	0.080	0.750
<i>IA</i>	4.104	16.652***	3.973	15.875***
<i>LOSS</i>	0.000	-0.005	-0.070	-2.136**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7.628***		79.470***	
Adj_Rsq	0.301		0.289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 다. 가설 3 실증분석결과(세무조사 여부)

본 연구의 <표 9>와 <표 10>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식(3)의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식(3)은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기업 간에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성향의 관계 차이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이익조정을 총 발생액으로 추정한 조세회피 변수(*TS\_T*)에서, 내부회계관리자 회계경력과 세무조사 여부 상호작용 변수(*MANCAR* × *TAXINV*)의 회귀계수  $\beta_2$ 는 -1.188( $t = -2.559$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내부회계인력 평균 경력과 세

무조사 여부 상호작용 변수( $MEMCAR \times TAXINV$ )의 회귀계수  $\beta_2$ 는  $-0.582$  ( $t = -4.625$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재량적 발생액 기반 조세회피 변수( $TS\_D$ )에서도, 내부회계관리자 경력과 세무조사 여부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  $\beta_2$ 는  $-3.424$  ( $t = -4.498$ ), 내부회계 인력 평균 경력과 상호작용 변수  $\beta_2$ 는  $-1.258$  ( $t = -6.029$ )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4년 내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가 있는 기업에서 내부회계 담당자의 회계경력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이 증가할수록, 즉 내부회계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가 있는 기업은 과거의 조사 과정에서 조세위반에 대한 제재, 세무당국과의 분쟁 비용, 조사에 따른 경영진·직원의 시간·노력 투입 등 다양한 형태의 비조세비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 경력과 내부회계 인력의 평균 경력이 길수록 조세회피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세무조사 경험이 내부회계 인력에게 조세회피의 잠재적 비용 구조를 학습시키고, 이들이 이후 조세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다 위험 회피적이고 준법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제재·추징뿐 아니라 기업 평판과 자본시장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감한 이후에는,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 인력이 조세회피 기회를 식별하는 동시에 그러한 전략이 초래할 비조세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함으로써,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종의 내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세무조사 후 조세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는 세무조사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 중심의 조세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조세회피 성향 완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표 9> OLS회귀분석 결과 (TS\_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S_T			
	MANCAR		MEMCAR	
	$\beta$	t-value	$\beta$	t-value
<i>Intercept</i>	3.861	15.039***	3.421	12.569***
<i>IC</i>	-2.853	-14.169***	-0.576	-12.480***
<b><i>IC</i> × <i>TAXINV</i></b>	<b>-1.188</b>	<b>-2.559**</b>	<b>-0.582</b>	<b>-4.625***</b>
<i>TAXINV</i>	-0.352	-17.809***	-0.354	-17.676***
<i>SIZE</i>	-0.128	-20.012***	-0.106	-16.254***
<i>LEV</i>	0.055	1.304	-0.014	-0.328
<i>GRW</i>	0.316	14.941***	0.276	12.542***
<i>ROA</i>	0.535	5.468***	0.067	0.784
<i>CFO</i>	0.179	1.855*	0.450	4.588***
<i>PPE</i>	0.079	1.215	0.059	0.911
<i>IA</i>	2.564	16.883***	2.559	16.779***
<i>LOSS</i>	0.036	1.839*	0.009	0.428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1.123***		72.647***	
Adj_Rsq	0.285		0.270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표 10> OLS회귀분석 결과 (TS\_D)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S_D			
	MANCAR		MEMCAR	
	$\beta$	t-value	$\beta$	t-value
<i>Intercept</i>	5.402	12.810***	4.672	10.331***
<i>IC</i>	-6.765	-20.457***	-1.346	-17.547***
<b><i>IC</i> × <i>TAXINV</i></b>	<b>-3.424</b>	<b>-4.498***</b>	<b>-1.258</b>	<b>-6.029***</b>
<i>TAXINV</i>	-0.610	-18.781***	-0.615	-18.525***
<i>SIZE</i>	-0.222	-21.125***	-0.183	-16.954***
<i>LEV</i>	0.957	13.858***	0.787	10.903***
<i>GRW</i>	0.569	16.358***	0.511	13.981***
<i>ROA</i>	0.428	2.663***	-0.738	-5.195***
<i>CFO</i>	0.195	1.229	0.648	3.980***
<i>PPE</i>	0.094	0.886	0.067	0.619
<i>IA</i>	3.996	16.022***	3.885	15.337***
<i>LOSS</i>	-0.014	-0.427	-0.091	-2.745***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F-value	82.204***		74.006***	
Adj_Rsq	0.288		0.274	
N_obs	5,581		5,581	

- 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 3) 'IC'는 해당 열(Column)에 표시된 내부회계 전문성 변수(MANCAR 또는 MEMCAR)를 의미함

## VI. 결 론

본 연구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조사 및 조세복잡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회계담당자의 경력 정보가 별도 공시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회계정보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내부회계 인력 전문성 향상이 회계정보 질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로 회계실패 위험과 부정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내부회계 전문성의 역할을 주로 재무보고 품질과 내부통제 효과 측면에서 검증해 왔다. 또한 내부회계가 기업의 조세 의사결정 주체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 증가는 기업의 세후이익과 위험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 조세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부회계 전문성을 조세회피라는 전략적 조세 의사결정 영역으로 직접 확장하여 분석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내부회계에서 수립하는 조세전략은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경력과 인력 평균경력으로 전문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조세회피 영향과 조세복잡성 및 세무조사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OLS 회귀분석으로 검증한다.

연구 결과, 내부회계 전문성은 조세회피 성향에 음(-)의 영향을 미쳐, 전문성이 높을수록 조세비용 절감 위주의 전략을 넘어서 잠재적 위험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마련함을 시사한다. 이는 내부회계 전문성이 회계정보 산출 과정의 기술적 역량을 넘어, 조세전략이 재무보고 단계에서 허용·통제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

복잡성 및 세무조사 여부는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 음(-)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복잡하거나 세무조사 이력이 있는 환경에서 전문화된 내부회계가 조세회피 감소에 더욱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내부회계 인력이 단순히 세무절차를 집행하는 기능인력을 넘어, 조세전략 수립 과정에서 명시적 세부담뿐 아니라 세무조사 적발, 소송 위험, 평판 훼손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조세 행태를 조정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세 환경이 복잡하거나 규제 리스크가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세무 부서에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조세전략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조세복잡성이 높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기업에서 내부회계 인력의 전문성이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및 내부통제 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당국은 단순히 재무성과나 세부담 수준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자격·교육 이수 현황과 같은 질적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조세위험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전문 인력을 통해 자율적인 위험 관리와 조세순응을 유인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공시되고 있는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 정보가 단순한 형식적 공시를 넘어, 투자자·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조세 리스크와 조세순응 역량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신호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는 내부회계 인력의 경력·자격·교육 이수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 질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과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위험 기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만, 각 기업별 내부회계 경력 산정 기준 차이와 조세회피 측정 과정의

오차 가능성을 한계로 인식한다. 또한 내부회계 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역인과성 또는 누락변수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료 및 표본 특성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교한 내생성 통제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모형, 사건연구, 제도 변화 등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내부회계 전문성이 실제로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조세복잡성 등 기업 특성을 더해 기존 연구를 확장하며,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심층적인 조세전략 연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강정연 · 김영철,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2.
- 고성삼 · 박상섭,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1.
- 박미영,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2.
- 심준용 · 유승원 · 이만우,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에 재무분석가가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5.
- 오수진 · 유승원,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과 가치관관련성”,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1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 이전오,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6.
- 지상현 · 류예린,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과 조세회피 관련성”, 『대한경영학회회지』 제27권 제11호, 대한경영학회, 2014.
- 홍옥화 · 고종권 · 박희진,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8.

### 2. 국외 문헌

- Ahmed, A. S. and Duellman, S., Accounting Conservatism and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3(2-3), Elsevier, 2007.
- Alleyne, P. and Howard, M., An Exploratory Study of Auditors' Responsibility for Fraud Detection in Barbado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0(3), Emerald Group Publishing, 2005.

- Alm, J. and Torgler, B., Do Ethics Matter? Tax Compliance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 Springer, 2011.
-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 Ashbaugh-Skaife, H., Collins, D. W. and Kinney Jr., W. R., The Discovery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Elsevier, 2008.
- Bimo, I. D., Prasetyo, C. Y. and Susilandari, C. A.,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on Tax Avoidance : The Case of Indonesia, *Journal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21(2), Emerald Group Publishing, 2019.
- Chalmers, K., Hay, D. and Khelif, H., Internal Control in Accounting Research : A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42(1), Elsevier, 2019.
- Chen, L. H., Dhaliwal, D. S. and Trombley, M. A., Consistency of Book-Tax Differences and the Information Content of Earning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2.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Elsevier, 2010.
- Chen, X., Hu, N., Wang, X. and Tang, X.,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 Evidence from China, *Nankai Business Review International* 5(1), Emerald Group Publishing, 2014.
- Cheng, A. C., Huang, H. H., Li, Y. and Stanfield, J., The Effect of Hedge Fund Activism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2.
- Chenhall, R. H., Management Control Systems Design Within Its Organizational Context : Findings from Contingency-Based Research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8(2), Elsevier, 2003.
- Christian, C., Tax Audits and Business Income : Accounting Procedur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2), Wiley, 1994.
- COSO,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Committee of Sponsoring

-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2013.
- De Simone, L., Mills, L. F. and Stomberg, B., Using IRS Data to Identify Income Shifting to Foreign Affiliat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4, Springer, 2019.
- DeBacker, J., Heim, B. T. and Tran, A., Importing Corruption Culture from Overseas : Evidence from Corporate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7(1), Elsevier, 2015.
- Dechow, P. M., Sloan, R. G. and Sweeney, A. P.,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1), Wiley, 1996.
- Desai, M. A. and Dharmapala, D.,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Elsevier, 2006.
- \_\_\_\_\_,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MIT Press, 2009.
- Doyle, J. T., Ge, W. and McVay, S.,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Elsevier, 2007.
- \_\_\_\_\_,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2(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7.
- Dyreng, S. D., Hanlon, M. and Maydew, E. L., When Does Tax Avoidance Result in Tax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9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9.
- Dyreng, S. D., Lindsey, B. P., Markle, K. S. and Shackelford, D. A.,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untry Characteristics on the Global Equity Supply Chains of US Multination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9(2-3), Elsevier, 2015.
- Erard, B., The Impact of Tax Audits on Large Corpor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2), Elsevier, 1997.
- Francis, B. B., Hasan, I., Wu, Q. and Yan, M., Are Female CFOs Less Tax Aggressive? Evidence from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the American*

- Taxation Association* 36(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4.
- Frank, M. M., Lynch, J. L. and Rego, S. O., Are Financial and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Reflective of Broader Corporate Policies?, *The Accounting Review* 8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 Gallemore, J. and Labro, 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 Goh, B. W. and Li, D., Internal Control and Investment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SOX Section 404 Disclo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5), Elsevier, 2011.
- Graham, J. R. and Tucker, A. L.,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Elsevier, 2006.
- Hanlon, M. and Heitzman, S.,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Elsevier, 2010.
- Hasan, M. M., Lobo, G. J. and Qiu, B., Organizational Capital,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70, Elsevier, 2021.
- Hasseldine, J. and Morris, G., Corporate Tax Complexity and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8(4),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3.
- Hoopes, J. L., Mescall, D. and Pittman, J. A.,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1-2), Elsevier, 2012.
- Huang, H. and Watson, 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34, Elsevier, 2015.
- Koo, J. E. and Ki, E. S., Internal Control Personnel's Experience,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SG Rating, *Sustainability* 12(20), MDPI, 2020.
- Kothari, S. P., Leone, A. J. and Wasley, C. E.,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Elsevier, 2005.
- Kubick, T. R., Lynch, D. P. and Mayberry, M. A.,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Before and After an Audit, *Accounting Horizons* 30(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 Li, Y., Wang, T. and Zhou, 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Tax Avoidance :

- Evidence from Chinese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54(3), University of Illinois, 2019.
- Mills, L. F. and Sansing, R. C.,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1), Canadian Academic Accounting Association, 2000.
- Payne, D. M. and Raiborn, C. A., Aggressive Tax Avoidance : A Conundrum for Stakeholders, Government,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7(2), Springer, 2018.
- Sarens, G. and Abdolmohammadi, M. J., Agency Theory as a Framework for Internal Auditing Research,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2), Emerald Group Publishing, 2007.
- Scarpa, F. and Signori, S., Ethics of Corporate Taxation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 Rendtorff, J. D. (Ed.), *Handbook of Business Legitimacy*, Springer Nature, 2020.
- Scholes, M. S., Wilson, G. P. and Wolfson, M. A.,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 The Tax Reform Act of 1986, unpublished manuscript, 1992.
- Schwab, C. M., Stomberg, B. and Williams, B. M., Effective Tax Planning, *The Accounting Review* 97(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22.
- Slemrod, J. and Yitzhaki, S., The Optimal Audit Strateg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1), Elsevier, 1987.
- Sun, X. S. and Habib, A.,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5(3), Wiley, 2021.
- Watts, R. L.,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3.
- Weber, J., The Role of Performance Evaluations in the Compensation of Managers, *The Accounting Review* 89(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4.
- Wu, K., Ai, W. and Liu, Y., Do Intangible Assets Really Foster Corporate Tax Avoidance?, SSRN *Working Paper* No. 3811955, 2022.
- Wunder, H., Tax Control Frameworks : A New Approach to Tax Risk Management, *OECD Tax Journal* 66(4), OECD, 2009.

Zhang, J., Accruals, Investment, and the Accrual Anomaly, *The Accounting Review* 82(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7.

Zarowin, P., Non-Linearities and Nominal Contracting Effects : The Case of the Depreciation Tax Shiel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0(2), Elsevier, 1988.

<Abstract>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and Tax Avoidance**  
**— A Study on the Effects of Tax Audits and Tax Complexity —**

Ji Min Kim\* & Sung Ook Park\*\*

Following the Enron accounting scandal,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Oxley Act (SOX) marked a turning point in strengthening corporate internal controls, significantly expanding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management and auditors. While the scandal was largely attributed to auditor misconduct, it also underscore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o detect or prevent accounting irregularities in advance. In response, regulatory efforts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through improved internal control frameworks have been implemented globally. In Korea, for instance, since November 2018, companies have been required to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 including their names, positions, experience, training hours, and certifications — through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peration Report.

Internal accounting plays a pivotal role beyond routine bookkeeping. It ensures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asset protection, and the execution of strategic management. Particularly in Korea, the expans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has spurred empirical research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ise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s well as its influence on accounting deci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ax processing and decision-making. Their role encompasses not only accounting treatment but also legal compliance, fraud detection, risk management, and ethical oversight. When

---

\* Primary Author : Ph.D.,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Certified Tax Accountant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these individuals possess high levels of expertis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s is enhanced, enabling the formulation of more stable and rational tax strategies. This becomes especially critical in firms facing high tax complexity or with a history of tax audits, where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are elevated.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greater accounting experience among internal accounting managers and higher average tenure among internal accounting staff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duced levels of tax avoidance. Moreov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and tax avoidance is more pronounced in firms with high tax complexity or recent tax audit experi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s with more qualified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are better equipped to recognize and mitigate reputational and legal risks associated with aggressive tax strategies, thereby enhancing overall tax compliance.

▶ **Key Words** : internal accounting expertise,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tax avoidance, tax complexity, tax audit